

고등학교 문학은

작품 감상 방법도 다양해지고
용어와 개념도 어려워집니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과목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되면서
작품을 깊이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문학을 잘하려면 먼저 시, 소설, 수필 등
다양한 갈래의 작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워진 문학 개념어와
어휘를 충분히 공부해야 합니다.

자이스토리는
문학의 모든 지문과 문제 출제 의도를 파악해
작품 갈래별로 적용할 수 있는 독해 공식을 만들고
대표 문제 유형에 대한 문제 풀이 특강을 수록했습니다.

또한 어휘+개념어 총정리를 활용해
어휘와 개념어를 바로바로 보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자이스토리와 함께한다면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때쯤
여러분은 국어 1등급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 No.1 수능 문제집 자이스토리 -

 내신+수능 **1등급** 완성 학습 계획표 [27일]

Day	문항 번호	틀린 문제 / 헛갈리는 문제 번호 적기	날짜		복습 날짜	
1	A 01~10		월	일	월	일
2	11~22		월	일	월	일
3	23~35		월	일	월	일
4	36~47		월	일	월	일
5	48~57(+어휘)		월	일	월	일
6	B 01~11		월	일	월	일
7	12~27		월	일	월	일
8	28~45		월	일	월	일
9	46~62		월	일	월	일
10	63~79		월	일	월	일
11	80~94		월	일	월	일
12	95~107		월	일	월	일
13	108~115(+어휘)		월	일	월	일
14	C 01~12		월	일	월	일
15	13~24		월	일	월	일
16	25~35		월	일	월	일
17	36~50		월	일	월	일
18	51~65		월	일	월	일
19	66~76(+어휘)		월	일	월	일
20	D 01~14		월	일	월	일
21	15~26		월	일	월	일
22	27~41		월	일	월	일
23	42~54		월	일	월	일
24	55~69		월	일	월	일
25	70~84		월	일	월	일
26	85~99(+어휘)		월	일	월	일
27	E 01~17		월	일	월	일



- 나는 _____ 대학교 _____ 학과 _____ 학년이 된다.
- 磨斧作針 (마부작침)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를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



집필진 · 감수진 선생님들



자이스토리는 내신 + 수능 준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능, 모의평가,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개념별, 유형별, 난이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명강의로 소문난 학교·학원 선생님들께서 명쾌한 해설을 입체 첨삭으로 집필하셨습니다.

[집필진]

노승연 서울 수명고
이동훈 청주 단재고

이세영 수원 수일고등학교
제민지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최슬지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특별 감수진]

강지수 해운대 수수수능국어
곽동훈 서울 세화고등학교
김연지 청주 충북여자고등학교
박경근 서울 진명여자고등학교

박윤선 광주 규장각국어학원
성하현 인천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윤정현 평택 평택고등학교
이종현 진주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

장병권 일산 임경미국어학원
장영만 서울 서문여자고등학교
최한나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황은경 남양주 덕소고등학교

[감수진]

강원국 광주 한수위국어전문학원
강현정 광주 청담아카데미학원
고송환 의정부 YB학원
권수익 용인 이강학원
김남주 서울 갈무리국어학원
김동훈 화성 향일고등학교
김민혜 성남 늘푸른고등학교
김서연 서울 바다국어
김선호 서울 갈무리국어학원
김선황 창원 김선황국어논술학원
김선희 제주 제주제일고등학교
김성용 제주 서귀포고등학교
김수빈 서울 갈무리국어학원
김수현 거창 온누리국어논술
김정규 서울 에이펙스학원
김종윤 서울 필과수학원
김진수 부산 비움앤재움국어교습소
김창룡 용인 러셀화성위계학원, 대치엘브리온학원
김태현 양주 엘리트학원
김현정 음성 동성고등학교
김현철 수원 이산국어
김혜경 인천 송도고등학교
김혜주 제주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김효성 천안 천안고등학교
김효수 대구 김효수국어학원
남승희 인천 송곳에듀
류도완 부산 류도완국어논술학원
문성인 인천 라자루스
문주현 부천 비디지아에듀입시학원
민지수 대전 플랜포워드에듀둔산학원
박명현 부산 지업학원

박병용 양주 채리티크리스천아카데미
박성연 대구 수오재국어학원
박소라 서울 국어샘학원
박수영 서울 구파발대치국어학원
박유진 성남 아름다운언어연구소
박정선 서울 가온누리국어학원
백지훈 고양 국어컨설턴트
사공학 대구 사공학원
서대근 안산 안산강서고등학교
서동경 진주 지안비한샘아카데미학원
서하림 대구 문고리국어전문학원
안호선 광주 송원고등학교
오영택 서울 국어샘학원
우보현 시흥 일오삼학원
유형민 대전 둔산마스터학원
윤상원 울산 윤원장국어전문학원
윤수영 수원 칠보고등학교
윤영우 안양 우공이산국어논술학원
이경희 부천 이경국어입시학원
이광은 안산 동산고등학교
이대건 서울 메이드세이노학원
이동익 전주 이동익국어학원
이영호 용인 바른국어학원
이옥현 광명 충현고등학교
이원규 울산 반석성균관학원
이유나 부산 부산진여자고등학교
이정선 서울 대성고등학교
이주민 안산 강서고등학교
이지영 부천 참된인재입시학원
이지영 대구 샘이김은국어교습소
이태환 고양 공투지학원

이현재 서울 가나안아카데미
이혜정 평택 말과글독서논술국어학원
임나정 군포 한빛국어학원
임소연 하남 동부중학교
장기윤 구미 장샘국어입시학원
장웅 부천 다꿈국어학원
장윤경 화성 반월고등학교
정미경 아산 국어에빠지다
정서유 고양 바른공부학원
정석영 울산 하늘언국어논술학원
정순우 대전 우송고등학교
정양정 서울 세화여자고등학교
정연우 대구 송강국어학원
정인수 진주 원탑학원
정일찬 용인 국어오름학원
제달성 대구 봄날국어
조나현 고양 아이비에듀학원
조영일 서울 오름학원
조은주 군포 사유에듀
주봄결 대구 나우리국어논술학원
주홍재 제주 즐거운공부학원
주효정 서울 영일고등학교
진승언 서울 김민경국어학원2관
최환우 안산 디자인문화고등학교
추민석 대구 추민석국어교습소
하랑 서울 서강학원
한보람 대구 한보람국어
한용진 인천 송도고등학교
허주리 화성 향일고등학교
현민주 서울 플투스학원
황승준 서울 트로이카국어교습소

차레

A 현대시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 연두에 울다(나희덕),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백석)

1 성찰이나 의지가 드러나는 시

- 향수(장만영), 마음의 태양(조지훈)
- 상한 영혼을 위하여(고정희), 장미와 가시(김승희)
- 적막한 식욕(박목월), 찬밥(문정희)
- 소년(윤동주), 나무의 꿈(손택수)
-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함민복)
- 광야(이육사), 울타리 밖(박용래)

2 추억과 회상, 그리움을 담은 시

- 고향의 천정 1(이성선), 밤풀 눈금(손택수)
- 성탄제(김종길), 수의 비밀(한용운)
- 추억에서(박재삼), 담양장(최두석)
- 고야(백석), 겨울산에 가면(나희덕)

3 자연과 생명, 사랑을 그린 시

- 낙엽송(박두진), 소등(박남수)
- 위로(윤동주), 달밤(황동규)
- 청산백운도(신석정), 새 옷 입는 법(문정희)
- 천수답(박목월), 민들레꽃(이형기)
- 춘설(정지용), 첫사랑(고재중)
- 사개 틀린 고품의 틈마루에(김영랑), 따뜻한 달걀(정진규)
- 초록 기쁨 - 봄숲에서(정현중), 오월(김영랑)

어휘 + 개념어 TEST

동아리 소개 / 서울대 TNT

B 고전 시가, 시 복합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 민농가(정해정), 박장대(유희)

1 고전 시가

- 훈민가(정철), 복선화음록(작자 미상)
- 어부사시사(윤선도), 초당춘수곡(남석하)
- 유민탄(어무적), 장육당육가(이별)
- 남은 다 자는 밤에(송이), 장상사(성현), 상사곡(박인로)
-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김기택), 두암육가(김약련)

2 고전 시가 + 고전 수필

- 채미가(김기홍), 기황전설(정온)
- ★ 작경가(이운영), 치경설(박장원)
- 만흥(윤선도), 전간대(홍석주)
- 십 년을 경영하여(송순), 농가구장(위백규), 접목설(한백점)
- 태산이 높다 하되(양사언), 사청사우(김시습), 이육설(이규보)
- 속미인곡(정철), 주옹설(권근)
- 황계사(작자 미상), 봄의 단상(이규보)
- 합강정가(작자 미상), 귀전록(이현보), 조설(남구만)
- 노부탄(순천 김 씨), 청학동기(이인로)

★ 2028 수능 예시문항

3 고전 시가 + 현대 수필

- 청춘 과부가(작자 미상), 갈까 보다 말까 보다(작자 미상),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신영복)
- 면양정가(송순), 가재마·나귀(백석)
- 매화사(안민영), 향기 있는 사람(신석정)
- 훈민가(정철), 관찰아(장영희)
- 설월죽(이황), 매화(권섭), 세한도(목성균)
- 강호사시가(맹사성), 상춘곡(정극인), 입춘(백석)
- 십육영(권섭), 출새곡(조우인), 태안사 가는 길에서(공선옥)
- 표해가(이방익), 여행(김기림)
- 고공답주인가(이원익), 돌탑과 잔돌(문태준)
- 일민가(윤이후), 화춘의장(이효석)

★ 4 현대시 + 설명문, 수필 복합

- 길(김기림), 한계(천양희)
- 눈 오는 지도(윤동주), 만나는 법(김종철), 떠 있는 삶(정약용)

어휘 + 개념어 TEST

C 현대 소설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 메아리(오영수)

1 광복 이전 (~1945년)

- 복덕방(이태준)
- 땡땡(김유정)
- 농부 정도룡(이기영)

2 광복 이후 ~ 산업화(1960년대)

- 흑산도(전광용)
- 맹순사(채만식)

3 경제 성장과 그 이면(1970년대)

★ 도요새에 관한 명상(김원일)

- 암소(이문구)
- 서글픈 순방(박완서)
- 귀향 연습(이청준)
- 몽기미 풍경(송기숙)

4 민주주의의 발전(1980년대)

- 파편(이동하)
- 달팽 씨의 두 번째 죽음(전상국)
- 당제(송기숙)

5 개인주의와 세계화(1990년대)

- 코끼리(김재영)
- 하얀 배(윤후명)
-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밋돼지(윤홍길)
- 도도한 생활(김애란)
- 투명 인간(성석제)
- 권순찬과 착한 사람들(이기호)
- 먼 바다(공선옥)

어휘 + 개념어 TEST

D 고전 소설 157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158

 • 왕시전(작자 미상)

11 영웅 · 군담 소설 162

 • 흥계월전(작자 미상)

 • 쌍주기연(작자 미상)

 • 장국진전(작자 미상)

 • 신유복전(작자 미상)

 • 정각록(작자 미상)

 • 태원지(작자 미상)

 • 최현전(작자 미상)

 • 석화룡전(작자 미상)

 • 임호은전(작자 미상)

 • 정비전(작자 미상)

 • 금방울전(작자 미상)

 • 최고운전(작자 미상)

 • 세경본풀이(작자 미상)

12 가정 · 애정 소설 188

 • 쌍주기연(작자 미상)

 ★ **옥루몽(남영로)**

 • 현몽쌍룡기(작자 미상)

 • 화산기봉(작자 미상)

 • 송부인전(작자 미상)

 • 속향전(작자 미상)

 • 서해무릉기(작자 미상)

 • 매화전(작자 미상)

13 판소리계 소설 204

 • 이춘풍전(작자 미상)

 • 춘향전(작자 미상)

 • 토공전(작자 미상)

 • 흥부전(작자 미상)

 • 수궁가(유성준 창본)

어휘 + 개념어 TEST 214

동아리 소개 / 이화여대 흥작 216

E 소설 복합 + 극 문학 217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218

 • 그게 아닌데(이미경)

11 희곡, 시나리오 222

 • 대장금(김영현)

 • 말아톤(정윤철, 윤진호, 송예진)

 • 뿌리 깊은 나무(김영현, 박상연)

 • 보석과 여인(이강백)

12 극 + 소설 복합 230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원작 · 박종원 각색)

어휘 + 개념어 TEST 233

어휘 총정리 235

빠른 정답 찾기 248



독해 공식+지문·문제 특강으로 쉽고 빠르게 국어 1등급 완성!

1등급 완성!

1 문학 갈래별 독해 공식

- 문학 작품을 빠르고 쉽게 분석하기 위해 작품을 갈래별로 구분하고, 갈래별 특징에 맞게 독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 현대시, 고전 시가, 현대 소설, 고전 소설, 극 문학, 수필의 독해 공식으로 국어 문학의 모든 지문을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 문학 갈래 쉽게 읽는 법: 갈래별로 작품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학습의 길잡이를 제공합니다.

A 현대시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며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가 시의 주요 내용입니다.

*** 시 독해 공식 적용하기**

- ① 화자, 중심 대상 찾기 - ○ 표시하기
- ②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밑줄 긋기
- ③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굵게 표시하기

현대시 쉽게 읽는 법

화자의 상황(배경)을 드러내는 표현에 주목하기
고전 시가 쉽게 읽는 법
소설과 시가 읽는 법
현대시 쉽게 읽는 법

[A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5 실시 3월 학평 20~29 (20)]

(가) 떨리는 손으로 뿔죽은 김밥을 입에 우셔넣고 있는 동안에도 기차는 여왕 뿔죽을 내 눈에 밀어넣었다.

③ 연도빛 벚꽃이 눈동자를 찔렀다. 뿔죽은 왜 그러도 푸르니까. 아니나. 푸르다는 말은 적당치 않다. 초록은 동생아이처럼 연두는 내게 좀 다른 주조로 여겨진다. 거기에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슬렁거림, 또는 수면거림 같은 게 남아 있다.

뿔죽에게 복작복작*이라도 달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펴며 제 우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도 뿔죽에 나가자듯 알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가락바깥을 하고 글기도 하면서,

④ 나는 내 순수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치할 연하여 깨닫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쿵 때어 온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뿔 죽이며,

도 내 스스로 화끈 빛이 붉도록 푸르려서 적이며,

2 지문 분석 특강으로 독해 공식 적용 훈련

- 갈래별 독해 공식을 기출문제에 실제 적용하며 작품을 독해하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 빈칸 채우기 문제를 통해, 지문 내용과 관련된 중요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특강

1.1 먼저 제목과 문제의 <보기>를 읽고 지문의 내용을 파악한다.

- 제목: (가)의 제목은 <연두에 푸르다>로, '연두'는 열매가 생장하는 상태를 상징한다. (나)의 제목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상>으로, 남신의주의 유동에 사는 '박시봉'의 집에서 보낸 편지라는 뜻이다.

*** (가)의 핵심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리해 본다.**

유기적, 연두빛, 푸른 열매를 바라보며, 유년기의 회고, 생명의 회고에 대한 회고

(가)의 화자는 그리고 이를 돌만큼 바라보며 연두라는 생명력이 있지만 자신의 안은 어둡다고 인식한다. 이때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오며 화자는 자신도 '가' 밑에 두고 온 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화자는 생명을 회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의 주제는 생명의 회고에 대한 의지이다.

A03 (2024) 분석

- (가) 두문으로 생기를 잃은 지자 → 연두빛, 돌만큼의 속성에 주목하여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이를.
- (나) 각지에서 울리 힘겨워 하는 지자 → 갈매나무의 속성에 주목하여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이를.

*** 현대시**

1. 화자, 중심 대상 찾기

- 화자: 지문 속 '나', '우리'는 화자를 가리킨다.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중심 대상: 제목 혹은 반복되어 나타나는 시어가 중심 대상인 경우가 많다.

2.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상황: '모자', '연두' 등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정서: '황당', '슬프다' 등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에 주목한다.
- 태도: 긍정적·부정적 시어를 통해 화자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파악한다.

3.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화자의 어조, 비유적 표현, 상상 전개 방식 등 지문에 어떠한 표현상 특징이 드러나 있는지 살펴본다.
예) 역설법, 단호한 어조, 수미상강

*** 독해 공식**

2.1 (나)에 독해 공식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

1. 화자, 중심 대상 찾기

- (나)의 화자는 '나'가 드러난다.
- (나)의 화자는 '갈매나무'를 떠올리며 힘든 현실을 버리며 굳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랑한다. 따라서 (나)의 중심 대상은 갈매나무이다.

2.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상황: (나)의 화자 '나'는 가족들과 떨어진 채 쓸쓸히 거리를 헤매고 있다. 그리고 겨울날 새겨지는 발자국 흔적을 기억하며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 정서: 태도: (나)의 화자 '나'는 과거에서 홀로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끄는 문명적 '갈매나무'를 떠올린 것을 기쁘게 힘든 현실을 긍정하게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자', '달음쳐가'와 '백여달', '나중은' '백여달'과 같이 지속적인 소재와 평면도 사투리를 활용하여 한층 더 문학성을 향상하고 있다.
- '소치할' 연하여 깨닫는다는 것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과거를 생생하게 화자의 지식을 강조하고 있다.

3 문제 풀이 특강으로 대표 문제 유형 정복

- 갈래별로 대표적인 문제 유형을 선별하고, 문제 유형에 따른 풀이 방법을 특강으로 정리했습니다.
- 문제 유형별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문제 풀이 특강

C01 사건과 갈등 파악하기 <보기>를 읽고 지문의 내용을 파악한다.

[2025 실시 3월 학평 20~29 (20)]

뒷골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읽고 있으므로 선택지에 언급된 내용을 골라 찾아 파악한다.

③ 동쪽이 아내는 천주에서 장사에 두전했지만, 본전보다 늦게 찾아와 화자가 대문 앞의 손에 닿지 않았다.

따라서 답은 ① 동쪽이 아내는 장사로 돈 자신의 차에 패배감을 느끼지만이다.

아름다운 도시에서 호기심으로 산골로 온 자신의 차에 패배감을 느끼지만 아내는 아내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함께 고생하고 있는 아내에게 측은함과 미안함을 느낀다.

③ 동쪽이 아내는 말거지, 강아지, 콩, 호미, 된장, 소금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여 산골로 갔다. 이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동쪽은 천주에서 혼자 떠돌아다니며 말을 다녔고, 백 노인을 팔게 된 것은 기아상태로 거리를 돌진 후이다.

⑤ 동쪽은 말속이 열매가 왕으로 죽간 해했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확신은 없었으며, 병도 미리 마련해 두었다.

C03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보기>를 읽고 지문의 내용을 파악한다.

[2025 실시 3월 학평 20~29 (20)]

<보기>에 드러난 '산속'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여 적용할 시와 관련된 부분을 찾는다. 그 후 작품과 선택지를 연관 지어 파악한다.

문맥적 연결과	문맥적 연결과
일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	산속을 개서 살고 내게 패배를 마땅하는 등 도시에서 살 때보다 훨씬 나은 환경을 살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새로운 구상	동쪽이 아내가 출로 살고 있는 땅에서 일하며 산속으로 들어가고 의 함해 살고자 함.

① 동쪽 부부는 도시에서 공평한 삶을 벗어날 수 없어 고향으로 왔는데, 이러한 도시의 삶과 피난처인 산속의 삶이 화자의 삶을 어떻게 만든 원인으로 볼 수 있다.

② 동쪽 내리는 '오지'로 조지들을 보고 자신들이 받은 위치가 과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을 알고 자신들도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정신적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문명적 안정을 얻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답은 ③ 동쪽 내리는 '오지'로 조지들을 보면서 자신이 실재하고 본가 생활은 장래에서 산속이 정신적 위안과 문명적 안정을 주는 공간임을 알 수 있었음이다.

④ 문명 생활이 대지를 사고 싶어하자 박 노인과 동쪽이 기꺼이 협력해 대지를 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현대시**

1. 화자, 중심 대상 찾기

- 화자: 지문 속 '나', '우리'는 화자를 가리킨다.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중심 대상: 제목 혹은 반복되어 나타나는 시어가 중심 대상인 경우가 많다.

2.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상황: '모자', '연두' 등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정서: '황당', '슬프다' 등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에 주목한다.
- 태도: 긍정적·부정적 시어를 통해 화자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파악한다.

3.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화자의 어조, 비유적 표현, 상상 전개 방식 등 지문에 어떠한 표현상 특징이 드러나 있는지 살펴본다.
예) 역설법, 단호한 어조, 수미상강

4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최신 고1 학력평가 문항으로 완벽하게 훈련하면 수능 국어 1등급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현대시: 주제별로 분류
- 고전 시가: 시 형식으로 분류
- 현대 소설: 시대순으로 분류
- 고전 소설: 주제별로 분류
- 제한 시간: 수능 실전에서 한 지문의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소요 시간

출처 표시

예) 2024 실시 3월 학평(고1): 2024년 3월에 실시한 고1 학력평가

• 난이도: ☆ 1등급 대비, ☆☆☆ - 상, ☆☆☆ - 중, ☆☆☆ - 하



5 독해력을 높이는 어휘 + 개념어 TEST

갈래별 학습이 끝난 후에는 관련 어휘를 테스트하며 복습해 보세요.

A 어휘 + 개념어 TEST

*** 사전적 의미 이해하기**

[01~02] 다음 의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고조되다	부두	교감	근심하다	대비하다
강행하다	탐색하다	언급되다	분질	포용하다
착입하다	다자다	무디다	역박하	고달보다

6 어휘 실력 보충 - 어휘 + 개념어 총정리

지문 · 문제를 읽다 모르는 어휘 · 개념어가 나오면 어휘 풀이를 참고하세요.

어휘 + 개념어 총정리 * 모르는 어휘

문제 풀면서 어휘+개념어 실력 보충

1. 가문 (가: 속류 가: 종)이...
가문이란... (가: 속류 가: 종)이...
가문이란... (가: 속류 가: 종)이...

2. 가문 (가: 속류 가: 종)이...
가문이란... (가: 속류 가: 종)이...
가문이란... (가: 속류 가: 종)이...

7 입체 침삭 해설!

시

1 화자, 중심 대상
시의 화자, 중심 대상에 표시했습니다.

2 상황, 정서, 태도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비롯해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3 표현상 특징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상 특징이 드러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 연 요약**
각 연의 내용을 요약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독해 공식 정답**
각 갈래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 작품 설명**
문학 작품의 갈래, 글쓴이, 제목의 의미, 이 작품은?, 주제, 창작 시기, 이것이 핵심! 등 제시된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고어 읽기
고어(옛 한글)의 소리를 현대어로 표기하였습니다.

시 해석
시의 내용을 쉽게 풀이했습니다.

소설

1 중심인물, 배경
소설의 중심인물과 사건이 펼쳐지는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2 중심 사건, 갈등
소설의 핵심을 이루는 사건과 갈등이 드러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3 서술상 특징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서술상 특징이 드러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 작품 설명**
소설의 장면 요약, 인물 관계도, 전체 줄거리와 지문 수록 부분, 이것이 핵심! 등을 통해 소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문제 유형 분석
수능형 문제 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지 선택률
학생들이 헷갈렸던 선지를 밝혀주기 위하여 선지별 선택률을 수록하였습니다.

왜 틀렸나
학생들이 많이 틀린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단서 + 발상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는 단서를 꼭 짚어 설명합니다.

발상
핵심 단서와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결합니다.

적용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적용해야 할 내용입니다.

해결
단서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 어휘 + 개념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는 어려운 어휘 및 개념어의 풀이를 제시했습니다.

왜 오답?
오답 풀이를 통해 틀린 문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선택지 출처 원리까지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근거가 되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왜 정답?
정답이 되는 이유와 다른 오답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문제 풀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항 배열 및 구성 [기출 364문항, 어휘+개념어 테스트 290문항]

- ① 최신 3개년 고1 학력평가 문학 기출 전 문항
10개년 고1 학력평가 문학 우수 문항 선별 수록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 수록

364문항

- 최신 3개년 고1 학력평가 문학 기출 전 문항을 수록하였습니다.
- 내신 · 학력평가 · 수능의 출제 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10개년 학력평가 기출문제에서 우수 문항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② 문학 독해력의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어휘+개념어 테스트 수록 (290문항)

- 갈래별 빈출 주요 어휘를 점검할 수 있는 ‘어휘 + 개념어 TEST’를 단위마다 구성하였습니다.

③ 최신 유형에 대비한 갈래별 단위 구분

- 최신 학력평가 문학 유형을 고려하여 현대시는 주제별, 현대 소설은 시대별, 고전 시가, 시 · 수필 복합 세트, 극 · 소설 복합 세트는 세부 갈래별로 단원을 구분하였습니다.

④ 어휘+개념어 총정리(표제어 643개)

- 지문과 문제 속 어휘와 개념어의 뜻을 모두 모아 예문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 지문을 읽고 문제 풀이를 할 때 모르는 어휘와 개념어가 있다면, 어휘 + 개념어 총정리에서 그 뜻과 용례를 확인해 보세요.

[국어 문학 기본 문항 구성표] - 고1 학력평가 문학 문항

실시 연도	3월	6월	9월	11월	문항 수	비고
2025	15	15	15		45	• 최신 3개년 고1 학력평가 문학 기출 전 문항 수록 • 10개년 고1 학력평가 문학 기출 우수 문항 선별 수록
2024	15	15	15	15	60	
2023	15	15	15	15	60	
2022	11	15	15	12	53	
2021	8	15	11	8	42	
2020	6	8	15	8	37	
2019	10	3	7	12	32	
2018	3	3	3	7	16	
2017	2				2	
2016				2	2	
2028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					15	2028학년도 수능 예시 15문항 수록
총 문항 수					364	



수록 작품 찾아보기 (최신 기출문제순 수록)

〈현대시〉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번호	작품명(작가명)
2028 수능 예시문항 43~45	B 108~110	길(김기림)
2028 수능 예시문항 43~45	B 108~110	한계(천양희)
2025 실시 9월 학평 31~33	A 05~07	향수(장만영)
2025 실시 9월 학평 31~33	A 05~07	마음의 태양(조지훈)
2025 실시 6월 학평 43~45	A 08~10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2025 실시 6월 학평 43~45	A 08~10	장미와 가시(김승희)
2025 실시 3월 학평 26~29	A 01~04	연두에 올라(나희덕)
2025 실시 3월 학평 26~29	A 01~04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백석)
2024 실시 10월 학평 31~33	A 36~38	낙엽송(박두진)
2024 실시 10월 학평 31~33	A 36~38	소등(박남수)
2024 실시 9월 학평 26~28	A 39~41	위로(윤동주)
2024 실시 9월 학평 26~28	A 39~41	달밤(황동규)
2024 실시 6월 학평 43~45	A 11~13	적막한 식욕(박목월)
2024 실시 6월 학평 43~45	A 11~13	찬밥(문정희)
2024 실시 3월 학평 16~20	B 19~23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 (김기택)
2023 실시 11월 학평 39~41	A 42~44	청산백운도(신석정)
2023 실시 11월 학평 39~41	A 42~44	새 옷 입는 법(문정희)
2023 실시 9월 학평 27~29	A 45~47	천수답(박목월)
2023 실시 9월 학평 27~29	A 45~47	민들레꽃(이형기)
2023 실시 6월 학평 43~45	A 14~16	소년(윤동주)
2023 실시 6월 학평 43~45	A 14~16	나무의 꿈(손택수)
2023 실시 3월 학평 16~18	A 23~25	고향의 천정 1(이정선)
2023 실시 3월 학평 16~18	A 23~25	밥물 눈금(손택수)
2022 실시 9월 학평 43~45	A 20~22	광야(이육사)
2022 실시 9월 학평 43~45	A 20~22	울타리 밖(박용래)
2022 실시 6월 학평 29~31	A 17~19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2022 실시 6월 학평 29~31	A 17~19	그날 나는 슬픔도 배물렀다(함민복)
2022 실시 3월 학평 31~33	A 51~53	사개 틀린 고향의 뒷마루에(김영랑)
2022 실시 3월 학평 31~33	A 51~53	따뜻한 달걀(정진규)

2021 실시 9월 학평 27~29	A 48~50	춘설(정지용)
2021 실시 9월 학평 27~29	A 48~50	첫사랑(고재중)
2021 실시 6월 학평 43~45	A 26~28	성탄제(김종길)
2021 실시 6월 학평 43~45	A 26~28	수의 비밀(한용운)
2020 실시 11월 학평 25~28	A 32~35	고야(백석)
2020 실시 11월 학평 25~28	A 32~35	겨울산에 가면(나희덕)
2020 실시 9월 학평 21~25	B 111~115	눈 오는 지도(윤동주)
2020 실시 9월 학평 21~25	B 111~115	만나는 법(김종철)
2020 실시 6월 학평 29~32	A 54~57	초록 기쁨-봄숲에서 (정현중)
2020 실시 6월 학평 29~32	A 54~57	오월(김영랑)
2020 실시 3월 학평 43~45	A 29~31	추억에서(박재삼)
2020 실시 3월 학평 43~45	A 29~31	담양장(최두석)

〈고전 시가〉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번호	작품명(작가명)
2028 수능 예시문항 34~38	B 28~32	착정가(이운영)
2025 실시 9월 학평 38~41	B 24~27	채미가(김기홍)
2025 실시 6월 학평 38~42	B 63~67	청춘 과부가(작자 미상)
2025 실시 6월 학평 38~42	B 63~67	갈까 보다 말까 보다 (작자 미상)
2025 실시 3월 학평 39~42	B 33~36	만흥(윤선도)
2024 실시 10월 학평 34~37	B 01~04	민농가(정해정)
2024 실시 9월 학평 38~42	B 54~58	합강정가(작자 미상)
2024 실시 9월 학평 38~42	B 54~58	귀전록(이현보)
2024 실시 6월 학평 35~39	B 85~89	강호사시가(맹사성)
2024 실시 6월 학평 35~39	B 85~89	상춘곡(정극인)
2024 실시 3월 학평 16~20	B 19~23	두암육가(김약현)

2023 실시 11월 학평 35~38	B 59~62	노부탄(순천 김 씨)
2023 실시 9월 학평 16~20	B 90~94	십육영(권섭)
2023 실시 9월 학평 16~20	B 90~94	출새곡(조우인)
2023 실시 6월 학평 33~37	B 80~84	설월죽(이황)
2023 실시 6월 학평 33~37	B 80~84	매화(권섭)
2023 실시 3월 학평 23~27	B 99~103	고궁답주인가(이원익)
2022 실시 11월 학평 34~37	B 104~107	일민가(윤이후)
2022 실시 9월 학평 26~29	B 76~79	훈민가(정철)
2022 실시 6월 학평 32~35	B 46~49	속미인곡(정철)
2022 실시 3월 학평 34~37	B 68~71	면앙정가(송순)
2021 실시 11월 학평 42~45	B 95~98	표해가(이방익)
2021 실시 9월 학평 34~37	B 72~75	매화사(안민영)
2021 실시 6월 학평 38~42	B 37~41	십 년을 경영하여(송순)
2021 실시 6월 학평 38~42	B 37~41	농가구장(위백규)
2020 실시 11월 학평 39~42	B 05~08	복선화음록(작자 미상)
2020 실시 11월 학평 39~42	B 05~08	훈민가(정철)
2020 실시 6월 학평 42~45	B 42~45	태산이 늙다 하되 (양사언)
2020 실시 6월 학평 42~45	B 42~45	사청사우(김시습)
2020 실시 9월 학평 29~31	B 09~11	어부사시사(윤선도)
2020 실시 9월 학평 29~31	B 09~11	초당춘수곡(남석하)
2019 실시 11월 학평 38~41	B 50~53	황계사(작자 미상)
2019 실시 9월 학평 31~33	B 12~14	유민탄(어무적)
2019 실시 9월 학평 31~33	B 12~14	장육당육가(이별)
2018 실시 11월 학평 29~32	B 15~18	남은 다자는 밤에(송이)
2018 실시 11월 학평 29~32	B 15~18	장상사(성현)
2018 실시 11월 학평 29~32	B 15~18	상사곡(박인로)

〈현대 소설〉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8 수능 예시문항 39~42	C 21~24	도요새에 관한 명상 (김원일)
2025 실시 9월 학평 34~37	C 40~43	파편(이동하)
2025 실시 6월 학평 34~37	C 51~54	코끼리(김재영)
2025 실시 3월 학평 22~25	C 25~28	암소(이문구)
2024 실시 10월 학평 38~41	C 29~32	서글픈 순방(박완서)
2024 실시 9월 학평 29~32	C 73~76	먼 바다(공선옥)
2024 실시 6월 학평 40~42	C 01~03	메아리(오영수)
2024 실시 3월 학평 25~28	C 44~47	달팽 씨의 두 번째 죽음 (전상국)
2023 실시 11월 학평 31~34	C 13~16	흑산도(전광웅)
2023 실시 9월 학평 43~45	C 33~35	귀향 연습(이청준)
2023 실시 6월 학평 26~28	C 55~57	하얀 배(윤후명)
2023 실시 3월 학평 34~37	C 58~61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윤홍길)
2022 실시 11월 학평 30~33	C 36~39	몽기미 풍경(송기숙)
2022 실시 9월 학평 35~38	C 66~69	투명 인간(성석제)
2021 실시 6월 학평 26~28	C 04~06	복덕방(이태준)
2021 실시 3월 학평 34~37	C 62~65	도도한 생활(김애란)
2020 실시 9월 학평 26~28	C 70~72	권순찬과 착한 사람들 (이기호)
2019 실시 11월 학평 21~24	C 17~20	맹순사(채만식)
2019 실시 3월 학평 25~27	C 48~50	당제(송기숙)
2018 실시 11월 학평 26~28	C 10~12	농부 정도룡(이기영)
2018 실시 6월 학평 24~26	C 07~09	땡별(김유정)

〈고전 소설〉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8 수능 예시문항 31~33	D 55~57	옥루몽(남영로)
2025 실시 9월 학평 42~45	D 51~54	쌍주기연(작자 미상)
2025 실시 6월 학평 26~28	D 05~07	흥계월전(작자 미상)
2025 실시 3월 학평 43~45	D 08~10	쌍주기연(작자 미상)
2024 실시 10월 학평 42~45	D 58~61	현몽쌍룡기(작자 미상)
2024 실시 9월 학평 43~45	D 48~50	세경본풀이(작자미상)
2024 실시 6월 학평 31~34	D 01~04	왕시전(작자 미상)
2024 실시 3월 학평 29~32	D 81~84	이춘풍전(작자 미상)
2023 실시 11월 학평 42~45	D 34~37	임호은전(작자 미상)
2023 실시 9월 학평 39~42	D 19~22	정각록(작자 미상)
2023 실시 6월 학평 29~32	D 11~14	장국진전(작자 미상)
2023 실시 3월 학평 43~45	D 42~44	금방울전(작자 미상)
2022 실시 11월 학평 42~45	D 62~65	화산기봉(작자 미상)
2022 실시 9월 학평 39~42	D 70~73	숙향전(작자 미상)
2022 실시 6월 학평 26~28	D 97~99	수궁가(유성준 창본)
2022 실시 3월 학평 42~45	D 85~88	춘향전(작자 미상)
2021 실시 11월 학평 33~36	D 38~41	정비전(작자 미상)
2021 실시 9월 학평 42~45	D 23~26	태원지(작자 미상)
2021 실시 6월 학평 29~32	D 93~96	흥부전(작자 미상)
2021 실시 3월 학평 42~45	D 89~92	토공전(작자 미상)
2020 실시 9월 학평 42~45	D 27~30	최현전(작자 미상)
2020 실시 3월 학평 35~37	D 45~47	최고운전(작자 미상)
2019 실시 11월 학평 42~45	D 66~69	송부인전(작자 미상)
2019 실시 9월 학평 42~45	D 74~77	서해무릉기(작자 미상)
2019 실시 6월 학평 38~40	D 78~80	매화전(작자 미상)
2019 실시 3월 학평 42~45	D 15~18	신유복전(작자 미상)
2018 실시 9월 학평 27~29	D 31~33	석화룡전(작자 미상)

〈현대 수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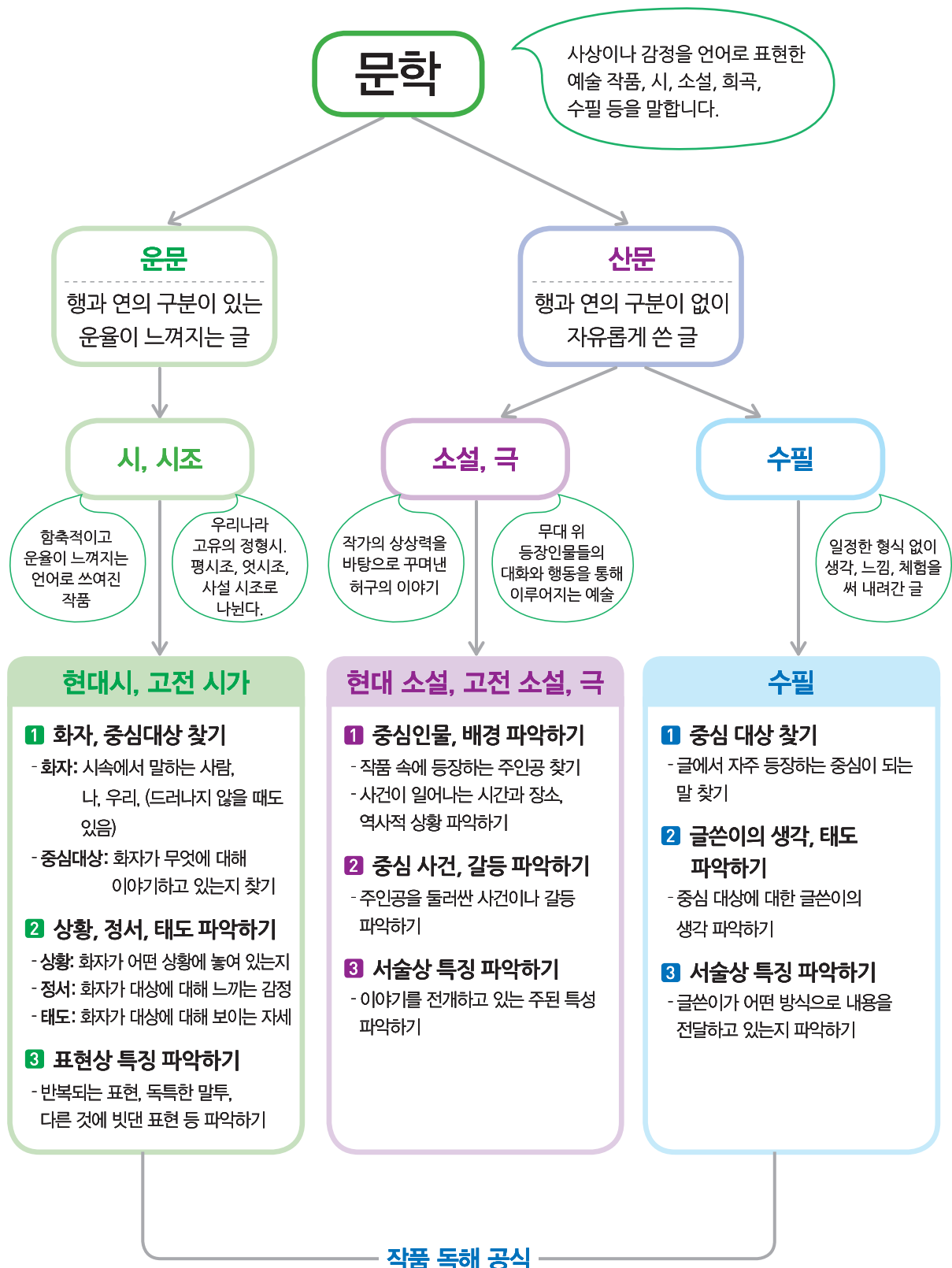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5 실시 6월 학평 38~42	B 63~67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 하는 까닭(신영복)
2024 실시 6월 학평 35~39	B 85~89	입춘(백석)
2023 실시 9월 학평 16~20	B 90~94	태안사 가는 길에서 (공선옥)
2023 실시 6월 학평 33~37	B 80~84	세한도(목성균)
2023 실시 3월 학평 23~27	B 99~103	돌탑과 잔돌(문태준)
2022 실시 11월 학평 34~37	B 104~107	화춘의장(이효석)
2022 실시 9월 학평 26~29	B 76~79	관찰아(장영희)
2022 실시 3월 학평 34~37	B 68~71	가재미·나귀(백석)
2021 실시 11월 학평 42~45	B 95~98	여행(김기림)
2021 실시 9월 학평 34~37	B 72~75	향기 있는 사람(신석정)

〈고전 수필〉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8 수능 예시문항 34~38	B 28~32	치정설(박장원)
2025 실시 9월 학평 38~41	B 24~27	기황전설(정온)
2025 실시 3월 학평 39~42	B 33~36	전간대(홍석주)
2024 실시 10월 학평 34~37	B 01~04	박장대(유희)
2024 실시 9월 학평 38~42	B 54~58	조설(남구만)
2023 실시 11월 학평 35~38	B 59~62	청학동기(이인로)
2022 실시 6월 학평 32~35	B 46~49	주옹설(권근)
2021 실시 6월 학평 38~42	B 37~41	점목설(한백겸)
2020 실시 9월 학평 21~25	B 111~115	떠 있는 삶(정약용)
2020 실시 6월 학평 42~45	B 42~45	이옥설(이규보)
2019 실시 11월 학평 38~41	B 50~53	봄의 단상(이규보)

〈극문학〉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4 실시 3월 학평 44~45	E 01~02	그게 아닌데(이미경)
2022 실시 6월 학평 41~45	E 13~17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2022 실시 6월 학평 41~45	E 13~17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원작 · 박종원 각색)
2019 실시 3월 학평 39~41	E 03~05	대장금(김영현 각본)
2018 실시 3월 학평 34~36	E 06~08	말아톤(정윤철 외)
2017 실시 3월 학평 41~42	E 09~10	뿌리 깊은 나무 (김영현, 박상연)
2016 실시 11월 학평 38~39	E 11~12	보석과 여인(이강백)



“ 자이스토리만의 특별한
작품 독해 공식으로 공부하면
국어 문학 실력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



고전 소설

- 1 영웅 · 군담 소설
- 2 가정 · 애정 소설
- 3 판소리계 소설

★ 고전 소설

19세기 이전에 신소설이 나오기 전까지 창작된 소설로, 설화를 바탕으로 좀 더 체계를 갖춘 소설이다. 주제 의식이 뚜렷한 작품들이 많아 주제에 따라 작품을 나누어 수록했다.

★ 독해 공식

고전 소설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3단계 공식으로 어떤 난이도의 작품이라도 스스로 독해할 수 있게 했다.

★ 고전 소설

독해 공식

- 1 중심인물, 배경 파악하기
- 2 중심 사건, 갈등 파악하기
- 3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 문제 유형별 특강

최신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고전 소설 지문과 함께 출제되는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을 제시했다. 특강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문제에 접근하면 고난도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1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작품에서 선택지에 제시된 서술 방식이 사용된 부분 찾기

2 인물의 심리와 태도 파악하기

인물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3 사건과 갈등 파악하기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4 소재 및 배경의 의미 파악하기

소재 또는 배경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파악하기

5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보기>를 먼저 읽고, 작품 해석의 관점, 문제 풀이 방향성과 관련한 내용 파악하기

6 관용 표현의 뜻 파악하기

작품의 내용과 관용 표현의 연관성 파악하기

★ 최신 3개년 고1 학력평가 출제 경향

실시연도	출제 지문	난이도
2025	3월 쌍주기연(작자 미상)	***
	6월 홍계월전(작자 미상)	***
	9월 쌍주기연(작자 미상)	**
	10월	
2024	3월 이춘풍전(작자 미상)	**
	6월 왕시전(작자 미상)	**
	9월 세경본풀이(작자 미상)	**
	10월 현몽쌍룡기(작자 미상)	***
2023	3월 금방울전(작자 미상)	**
	6월 장국진전(작자 미상)	**
	9월 정각록(작자 미상)	**
	11월 임호은전(작자 미상)	***

★ 2025년 출제 경향 및 분석

- **3월 학평:** 작자 미상의 <쌍주기연>이 출제되었다. 세 문항 모두 까다롭게 출제되어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 **6월 학평:** 작자 미상의 <홍계월전>이 출제되었다. 대체로 평이한 수준이었지만, 작품을 감상한 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가 까다로웠다.
- **9월 학평:** 작자 미상의 <쌍주기연>이 출제되었다. 대체로 평이한 수준이었지만,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까다로웠다.
- **10월 학평(2024):** 작자 미상의 <현몽쌍룡기>가 출제되었다. 네 문항 모두 까다롭게 출제되어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 고전 소설 지문과 함께 출제되는 문제들은 대체로 이전의 기출 문제의 출제 경향을 따르고 있으므로,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어 봄으로써 인물 간의 관계 속에서 사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연습과, <보기>를 지문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연습을 철저히 해 두어야 한다.



D 고전 소설

고전 소설의 주요 내용은 남녀 간의 사랑, 영웅적 일대기, 선과 악의 대결 등 전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고전 소설 독해 공식 적용하기

- 1 중심인물, 배경 파악하기 - ○ 표시하기
- 2 중심 사건, 갈등 파악하기 - 괄호 치기
- 3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 밑줄 긋기

고전 소설 쉽게 읽는 법: 인물의 여러 호칭·지칭에 유의하여 인물들 간의 관계 파악하기

[D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4 실시 6월 학평 31~34(고1)]

[앞부분 줄거리] 왕언의 딸 왕시는 흥관 땅의 김유령을 만나 혼인을 했지만 나라의 늙은 신하에 의해 이별하게 되었다.

김유령이 무릎을 꿇고 대답하였다.

“제 나이 스무 살 되었을 때 아내를 얻었는데, **나라의 노신하가 궁녀로 들이니** 늘 서러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일도 잊은 채, 다만 아내의 소식이나 한번 듣고 싶어 그것만을 희망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꿈에 선할아버님께서 이르시기를, ‘어찌 화산도사를 찾아가 보지 않는가? 그 도사가 못할 일이 없으니 네가 가보면 소원을 이룰 수 있으리라. 갈 때 돈 일만 관을 가져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돈을 장만하여 가지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자 도사가 말했다. / “네 아내를 도로 밖으로 내어다 살고자 하느냐? 네 뜻을 자세히 말해라.”

김유령이 말했다.

“도로 내어다 살기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와 하루만이라도 만나보아 서로 말이나 나누었으면 합니다.”

도사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 “네 뜻을 바로 말하지 않는구나. 하루만 보고 헤어지면 더욱 슬플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사실대로 다 말해라.”

그러자 김유령이 다시 대답하였다. / “함께 살기야 어찌 바라지 않을까마는 불가능할 일이라 차마 말씀드리지 못할 뿐입니다. 만약 함께 살게만 해 주신다면 제가 두엄을 지고 다니는 사람이 되라 한다 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중략)

“점때 이 땅에 오라고 하시던 사람인데 다시 왔습니다.”

그러자 도사가 대답하였다.

“네가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도 착실한 사람이므로 월궁도사가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그대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정으로 가르침으로써 **그대가 선간(仙間)에서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 하고 인간 세상에서 일 년만 좋은 일을 하면 선간에서 전에 지은 죄를 없애주려고 그대의 말을 들으려 했더니, 그대 무엇 때문에

- [A] 짐승을 살게 하였단 말인가? 비록 하늘이 생겨나게 했으나 뱀이란 도질어 죄없는 사람이며 불쌍한 짐승을 다 잡아먹느니라. 또 남의 것을 빼앗고 죄없는 사람을 죽이는 도적을 어찌서 살려주었느냐? 불쌍한 것을 구제하라 하였지 그런 것들을 살려내라 하더냐? 이 두 가지 일을 또 저질렀으니 삼 년간 조심하고 사 년 만에 오나라. 그때 보자.”

이러고는 간데없이 사라졌다. 김유령이 애앓고 민망해 집에 와서 문을 닫고는 들어앉아 조심하여 **그릇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게 행실을 삼가고 있다가 사 년 만에 화산으로 들어갔다. 그제서야 도사는 김유령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네 뜻이 보통이 아니로다. 돌이 굳지만 모래 될 때가 있고 쇠가 [B] 굳다 하나 녹을 때가 있으되 너는 돌이나 쇠보다도 더욱 굳은 사람으로다. 네게 이루어질 게 있으리라. 네 돈을 내라.”

김유령이 돈을 내어 바치니 그 도사가 동쪽으로 그중의 일백을 던지니 이윽고 푸른 옷 입은 사람이 오는 것이었다. 다시 서쪽으로 일백을 던지자 이윽고 흰 옷 입은 사람이 오고 또 일백을 북쪽으로 던지니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오고 나머지를 공중에다 던지자 이윽고 쇠머리 쓴 사람과 용의 몸을 지닌 사람과 귀밑머리가 단정한 사람 등이 오는 것이었다. 도사가 그중 검은 옷 입은 사람더러 말했다.

“유령이를 죽여 대령하고, 궁궐에 가 왕시도 죽이고 오라.”

그러자 그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즉시 유령이를 죽여 대령하고 왕시도 죽이고 와서는 보고하였다.

“왕시를 죽이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푸른 옷 입은 사람더러 말했다.

“유령이를 살려내라.”

그러자 살려내는 것이었다. 도사가 김유령더러 말했다.

“네 집에 가서 들어보아라. 왕시가 죽었다며 장례를 치를 것이다. 담당 관리를 내어 석 달 만에 묻으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석 달 안에 묻지 못하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 빨리 가라.”

유령이 청원하였다.

“집이 두 달 걸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 도사가 사람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김유령이로 하여금 그 집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이윽고 서쪽으로부터 구름이 일고 천둥치며 하늘과 땅이 자욱하게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것이었다. 살펴보니 **어느 곁에 자기 집에 도착해 있었다**. 들어보니 왕시가 죽었다며 장례 담당 관원을 내어 묻으려고 하였다.

김유령이 장례 담당 관원에게 소청하여 스무 날 내에 묻었다. 김유령이 생각하니, 도사 말이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 기쁘기는 하나 그 시신을 묻고 보니 슬픈 심사가 더욱 그지없었다. 다시 화산으로 즉시 가서 도사에게 왕시를 묻었다고 아뢰려고 하였다.

화산에 가니 마침 그 도사가 월궁도사를 만나러 간 지 열흘이 넘도록 오지 않고 있었다. 매우 민망하여 음식을 먹지 않은 지 이레가 되어 기운과 정신이 아주 없었다. 도사를 모시고 다니는 아이더러 그 서러운 사정을 말하니, 그 아이도 도무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 더욱 민망해 하고 있었다.

이윽고 천지가 자욱하고 천둥치고 바람불고 비내리고 어두워져 심사가 더욱 아득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더니 문득 날도 밝아지고 바람도 그치고 비도 개면서 도사가 내려오는 것이었다.

김유령이 나아가 뵈고, 왕시 묻은 일을 말하였다. 그러자 도사가 조그만 종이에 주사(朱砂)를 갈아서 부적을 써서 공중으로 치울리니 이윽고 도끼 가진 것과 괘이 가진 귀신이 모두 오는 것이었다. 또 동방에서 내치니 이윽고 푸른 옷 입은 사람이 왔다.

도사가 그 푸른 옷 입은 사람에게 말했다. / “저 귀신을 데리고 왕시의 무덤을 파내 화산 밑에다가 두고 와라.”

그러자 푸른 옷 입은 놈이 그 귀신을 데리고 갔다. 이윽고 북방의 검은 옷 입은 사람더러 말했다.

“옛집에 가서 무병 등 왕시를 알던 종들을 다 잡아다가 유희국에다가 두어라.”

그러자 하직하고 가는 것이었다. 도사가 김유령더러 말했다. / “이제야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려가라. 다만 왕시의 종들을 다 잡은 것은 행여 일이 생기면 네가 잘못될 것이므로 죽여온 것이니 서러워 말라.”

— 작자 미상, <왕시전>

D01 *** 2024 실시 6월 학평 31 (고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현재와 과거의 교차 서술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외양 묘사로 성격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D02 *** 2024 실시 6월 학평 32 (고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유령은 도사에게 처음부터 숨김없이 소원을 말하였다.
- ② 도사는 김유령에게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 ③ 김유령은 담당 관원에게 소청하여 왕시의 시신을 스무 날 안에 묻었다.
- ④ 김유령은 왕시의 시신을 묻고 난 이후 도사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화산으로 갔다.
- ⑤ 도사는 검은 옷 입은 사람에게 무병 등 왕시를 알던 종들을 유희국으로 데려가게 했다.

D03 *** 2024 실시 6월 학평 33 (고1)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상대를 회유하려는 의도가, [B]에는 상대를 조롱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 ② [A]에는 상대의 행동을 질책하는 태도가, [B]에는 상대의 성품을 칭찬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③ [A]에서는 다른 이의 조언을 바탕으로, [B]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
- ④ [A]와 [B]에는 모두 상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드러난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과거의 사건을 근거로 들어 문제 해결을 유보하고 있다.

D04 ★ 1등급 대비 2024 실시 6월 학평 34 (고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왕시전>은 여인을 향한 남성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혼인한 남녀 주인공이 외부의 힘에 의해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재회하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그 과정에서 초월적 존재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거나 남자 주인공이 원래 신선계의 존재였다고 설정하는 등의 전기적(傳奇的) 요소가 나타난다.

- ① ‘나라의 노신하가 궁녀로 들이니’라고 김유령이 말하는 장면에서, 외부의 힘에 의해 남녀 주인공이 헤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그대가 선간에서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도사가 말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이 전생에 신선계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그릇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장면에서, 왕시에 대한 김유령의 애틋한 사랑을 알 수 있겠군.
- ④ ‘어느 곁에 자기 집에 도착해 있었다’라는 장면에서, 김유령이 부리는 도술이 초월적 존재의 힘을 빌린 것임을 알 수 있겠군.
- ⑤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도사가 말하는 장면에서, 남녀 주인공이 다시 만나는 행복한 결말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1st 먼저 문제의 <보기>를 읽고 지문의 내용을 파악한다.

- 문제 <보기>: <왕시전>은 왕시를 향한 김유령의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둘이 외부의 힘에 의해 헤어지지만 전기적 요소의 도움으로 재회하여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이야기이다.

D03 <보기>분석

혼인한 남녀 주인공이 외부의 힘에 의해 헤어짐.

재회하여 행복한 결말을 맞음.

- 초월적 존재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함.
- 남자 주인공이 원래 신선의 존재였다는 설정이 드러남.

★ 고전 소설

독해 공식

① 중심인물, 배경 파악하기

- 중심인물: 중심인물이 여러 등장하면 그들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고, 중심인물이 한 명이면 그 인물의 내면에 집중한다.
- 배경: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시간적 · 공간적 배경), 중심인물을 둘러싼 사회적 · 역사적 상황은 어떠한지(시대적 배경) 살펴본다.

② 중심 사건, 갈등 파악하기

- 중심 사건: 중심인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된 일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갈등: 소설에서 갈등은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물이 어떠한 대상과 대립하거나 혼자서 혼란을 느끼는 부분에 주목해 본다.

③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서술자가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지, 사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예) 시점, 액자식 구성, 요약적 서술, 풍자 등

2nd 독해 공식 ①, ②, ③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

① 중심인물, 배경 파악하기

<왕시전>에 등장하는 중심인물은 '김유령'과 '화산도사'이다. 김유령은 사랑하는 아내 왕시와 이별하고, 그녀와 다시 함께 살게 해 달라고 화산도사에게 부탁한다. 화산도사는 김유령에게 과업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한 김유령에게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왕시를 되찾아준다. 한편 공간적 배경은 화산도사가 있는 곳 화산과 김유령의 집이다.

- 중심인물: 김유령, 화산도사
- 공간적 배경: 화산, 김유령의 집

② 중심 사건, 갈등 파악하기

- [앞부분 줄거리]: 왕언의 딸 왕시는 ~ 이별하게 되었다.
 - 왕시가 김유령과 혼인했지만 노신하에 의해 이별하게 되었음이 제시된다.
- ①: 김유령이 무릎을 꿇고 ~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 김유령은 꿈에서 화산도사를 찾아가 보라는 말을 듣고 도사를 찾아가 헤어진 아내와 다시 살게 해 달라고 호소한다.

- ②: "절때 이 땅에 오라고 ~ 왕시를 물었다고 아뢰려고 하였다.
 - 화산도사는 김유령이 뱀과 도적을 살려 준 것을 질책하며 아내를 다시 만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과업을 제시한다. 김유령은 왕시를 다시 만나기 위해 화산도사의 말을 따르고, 화산도사는 김유령을 칭찬하며 소원을 이루어 주기로 한다. 화산도사는 도술로 사람들을 불러내어 김유령을 죽였다 살리고, 왕시를 죽인 뒤 석 달 안에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유령은 화산도사의 도술로 두 달 걸리는 집까지 순식간에 도착하여 화산도사가 시킨 대로 왕시를 물어 준다.
- ③: 화산에 가니 마침 ~ 죽여온 것이니 서러워 말라."
 - 김유령이 화산도사를 다시 찾아가 왕시를 묻은 일을 말하고, 화산도사는 김유령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신이한 능력을 발휘한다.

• 중심 사건

- 김유령이 화산도사에게 헤어진 아내와 함께 살게 해 달라고 부탁함.
- 화산도사가 김유령에게 소원을 이루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과업을 제시함.
- 김유령이 화산도사의 지시에 따라 왕시를 물어 줌.
- 화산도사가 김유령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신이한 능력을 발휘함.
- 갈등: 두드러지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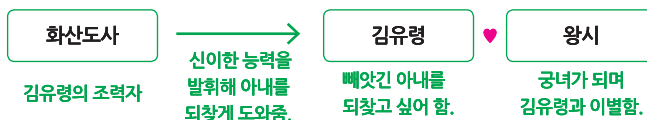
③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이 작품에는 1인칭 서술자를 나타내는 말인 '나'가 나오지 않으므로 서술자는 작품 밖에 존재하는 '3인칭 서술자'이다. 또한 3인칭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 서술자: 3인칭 서술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관탈민녀 모티프(지배 계층 남성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하층 여성의 정절을 뺏으려 하는 이야기 구조)가 나타남.
- 인물의 발화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요약적으로 제시함.
- 적당 모티프가 나타남.
- 시간의 경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함.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성품을 드러냄.
- 전기적,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인물의 신이한 능력을 나타냄.
- 재생 모티프가 나타남.

3rd 이 작품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리한다.



이 작품은 남자와 여자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남녀이합형 소설로, 왕시와 김유령의 혼인에 따른 갈등과 고난, 그리고 극복 과정이 드러난다. 김유령은 자신의 아내를 되찾기 위해 화산도사를 찾아가고, 그가 제시한 과업을 수행하며 자신의 아내와 다시 만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소설의 주제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순수한 사랑과 애정'이다.



D01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작품에서 선택지에 제시된 서술 방식이 사용된 부분 찾기

[① 85% ② 1% ③ 2% ④ 4% ⑤ 6%]

선택지에 제시된 서술 방식을 확인한 후, 작품에서 그 서술 방식이 사용된 부분을 찾는다.

- ① 김유령이 화산 도사를 찾아오게 된 계기와 김유령의 소원 등이 대화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
- 따라서 답은 '①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이다.
- ② 김유령이 화산도사를 찾아가 소원을 말한 것, 화산도사가 김유령이 해야 할 과업을 제시한 것, 그 과업을 수행하고 김유령이 화산도사를 다시 찾아간 것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③ 화산도사가 돈을 던져 불러낸 신인들의 겉모습만을 묘사하고 있을 뿐, 이를 통해 성격의 변화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 ④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화산도사가 김유령을 질책하는 장면은 일방적인 비판이므로 갈등으로 볼 수 없다.

★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유형 - 풀이 순서

- ① 선택지에 제시된 서술 방식 확인하기
- ② 작품에서 그 서술 방식이 사용된 부분 찾기

특강

D02 사건과 갈등 파악하기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① 83% ② 4% ③ 2% ④ 4% ⑤ 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으므로, 인물의 생각이나 행동을 찾은 뒤 선택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답을 찾는다.

- ① 김유령은 처음 도사가 뜻을 물어보았을 때 하루만 왕시를 만나 말을 나누고 싶다고 하며 아내와 함께 살고 싶다는 진짜 소원을 말하지 않았다. 따라서 답은 '① 김유령은 도사에게 처음부터 숨김없이 소원을 말하였다.'이다.
- ② 화산도사는 김유령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삼 년간 조심'하라는 과업을 제시하고, 김유령이 이를 지킨 뒤에야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 능력을 발휘한다.
- ③ 김유령은 화산도사의 말을 듣고 담당 관원에게 소청하여 왕시의 시신을 스무 날 내에 묻었다.
- ④ 김유령은 왕시를 묻고 화산으로 가서 도사에게 왕시를 묻었다는 것을 아뢰려고 하였다.
- ⑤ 화산도사는 김유령의 소원을 이뤄 줄 신인에게 왕시를 알던 종들을 유혹하기로 데려가게 했다.

★ 사건과 갈등 파악하기 유형 - 풀이 순서

- ① 인물의 생각, 행동(말) 찾기
- ② 선택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특강

D03 인물의 심리와 태도 파악하기

인물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① 2% ② 87% ③ 4% ④ 2% ⑤ 3%]

[A]	화산도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뱀이나 도적을 살려 준 김유령을 질책하는 말이다.
[B]	화산도사가 김유령의 단단한 성품을 칭찬하고 소원을 이루어 주기로 하는 말이다.

- ① [A]에서 화산도사는 김유령의 행동을 질책하며 김유령에게 과업을 제시하고 있고, [B]에서는 김유령의 굳은 의지를 칭찬하고 있다.
- ② [A]에서 화산도사는 김유령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고, [B]에서는 김유령의 굳은 의지를 돌과 쇠와 비교하며 칭찬하고 있다.
- 따라서 답은 '② [A]에는 상대의 행동을 질책하는 태도가, [B]에는 상대의 성품을 칭찬하는 태도가 드러난다.'이다.
- ③ [A]에서 화산도사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의사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며, [B]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의사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 ④ [A]에서 화산도사는 김유령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며, [B]에서는 김유령의 미래를 언급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 ⑤ [A]에서 화산도사는 김유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지만, [B]에서는 김유령이 아내와 이별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한다.

D04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보기>를 먼저 읽고, 작품 감상하기

[① 3% ② 9% ③ 28% ④ 53% ⑤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작품에 반영된 전기적 요소를 파악한다.

남자 주인공이 신선계의 존재였음.	→	김유령은 선간에서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난 신선계의 존재임.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함.	→	김유령은 화산도사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함.

- ① 김유령이 아내와 헤어지게 된 까닭은 노신하가 아내인 왕시를 궁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 ② 김유령이 선간에서 잘못된 일을 저질러 인간 세상에서 선행을 하도록 했다는 화산도사의 말에서 김유령이 인간 세계에 태어나기 전 신선계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김유령은 왕시와 재회하기 위해 화산도사가 시키는 대로 따른다. 이를 통해 왕시를 향한 김유령의 사랑을 알 수 있다.
- ④ 김유령이 집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도술을 부린 주체는 화산도사이다. 따라서 답은 '④ 어느 곁에 자기 집에 도착해 있었다'라는 장면에서, 김유령이 부리는 도술이 초월적 존재의 힘을 빌린 것임을 알 수 있겠다.'이다.
- ⑤ 김유령의 소원은 왕시와 재회하는 것이고, 화산도사가 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김유령이 왕시와 재회하여 행복하게 사는 결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고전 시가 + 고전 수필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제한 시간 5분

[B24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방초 우거진 시냇가에 몇 간 초가 지어 두고

아침저녁 듣는 소리 새 울음뿐이로다
 시경(詩經) 서경(書經) 기대어 누워 사립문을 닫았으니
 산과 시내 새로운데 구름 안개만 잠겨 있다
 늘어진 푸른 솔은 늙을 줄을 모르거든
 가늘게 시냇물은 주야를 흘러간다
 담쟁이 풀 깊은 곳에 찾을 이 뉘 있으며
 비바람 부는 ㉠ 세상에 명성은 내 몰라라
 화창한 바람 건듯 불어 산중에 봄이 드니
 온갖 꽃이 가득 피고 나비들이 넘놀 적에
 경치가 무궁하여 눈앞에 벌어지니
 허다히 듣는 소리 반가이 보는 빛을
 이른들 다 이르며 뉘라서 그러 내리
 ㉡ 길고 긴 골짜기에 골레 벗은 몸이 되어
 꽃 핀 아침 달 뜬 저녁 **마음껏 노닐**다가
 붉은 벼랑 구름 속에 이슬 맞고 자란 꽃을
 일없이 노닐면서 아침저녁 사랑하다가
 붉은 채소를 익게 삶아 아침저녁 요기하니
 노순(鰯蓴)* 같은 맛이구나 팔진미를 아랑곳 하겠는가

(중략)

부귀를 다 잊으니 평생에 할 일 없어
 청려장을 손에 들고 돌길에서 서성이니
 버들에 바람 불고 솔 잣나무 달 비칠 때
 마음속이 담담하니 해마(害馬)도 간 데 없다
 연비어약(鰣飛魚躍)*을 때때로 살펴보니
 가을 달 봄바람이 갈수록 흥이로다
 단사표음(簞食瓢飮)*을 먹으나 못 먹으나
 겨울 갓옷 여름 갓옷 입으나 못 입으나
 ㉢ 빛 없는 청풍명월과 백년해로 하리라

- 김기홍, <채미가>

* 노순(鰯蓴): 농어회와 순채나물국

* 연비어약(鰣飛魚躍): 솔개가 날아가고 물고기가 뛰어늘.

* 단사표음(簞食瓢飮):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으로, 소박한 생활을 이르는 말

(나) 을미년(1595) 봄, 내가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두어 이랑의 밭**을 마련했다. 밭은 신벌리에 있었다. 이웃의 농부에게 밭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참 좋은 밭입니다. 어떤 곡식을 심어도 잘 자랄 땅이지요. 습하지도 않고 메마르지도 않아 수해나 가뭄이 들어도 별 영향이 없을걸요. 전에 이곳에 농사를 지은 사람은 수확이 많았지요. 요즘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많아 버려둔 지 5~6년 됐지만 밭입니다.”

나는 비옥했지만 오랫동안 버려졌다는 그 땅이 아까워 개간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아주 단단한 농기구와 노련한 농사꾼 몇을 구해 황소 두어 마리를 끌고 밭으로 갔다.

3월 17일 무렵이었는데, 밭에는 잡초와 가시덤불이 우거져 한 치의 빈틈도 없었다. **뿌리가 서로 뒤엉켜** 아무리 날카로운 농기구라고 해도 쉽게 끊어낼 수 없을 정도였다. 괜히 힘만 쓰고 밭은 개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와 걱정이 슬며시 들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라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었다. 쟁기 하나에, 황소 두 마리를 부려 한 사람은 쟁기질을 하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고삐를 끌면서 밭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딘 도구로 단단한 돌을 깎는 것처럼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밭을 일구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보습이 닿는 곳마다, 물살이 거셀 때 물속의 돌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소리처럼, 우르릉 쿵쿵 하는 소리가 났다.

잡초의 **뿌리를 끊고** 난 뒤 일꾼 밭을 보니 굳은 흙덩이가 겹겹이 쌓여 있어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군세고 사나운 군사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화를 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밭을 점점 더 개간해 가자, **엷혔던 것이** 풀어지고 **단단한 흙**도 부서져 예전의 밭 모양을 갖추게 되었고, 힘도 조금씩 덜 들게 되었다. 일하던 사람들도 피곤을 덜 느끼고 개간한 밭을 보며 기뻐했다. 이렇게 계속 개간을 하면 수레 가득 조를 수확해 담을 수도 있고, 망태기에 곡식을 채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 마음이 점점 기쁨으로 차 오르기 시작했다.

이 일을 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도 좋은 밭**이 하나씩 있다. 그 밭이 바로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다. 그리고 거기에 심는 ㉠ **씨앗**이 인(仁), 의(義), 예(禮), 지(智)이다. 그 밭은 평평하여 험하지 않고 비옥해서 작물이 잘 자란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그 땅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 **살면서 사심이 생겨** 이랑이 올라오고, 욕심이 생겨 좋은 곡식을 해치면, 밭이 황폐해지고, 나고 자라는 자연의 이치도 멈춘다.

하지만 그 본질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진실로 밭을 일구려는 사람이 ㉢ **안희의 사물(四勿)***을 황소로 삼고, **중자의 삼성(三省)***을 쟁기로 삼아 개간하기 어려운 땅을 일구기 시작하여, 한 번 이겨 낸 뒤에는 느긋한 여유가 생긴다. 그 결과 예전과 같은 밭을 일구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곡식이 왜 자라지 않을까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내 밭이 황폐해져 개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스스로를 포기한 것일 뿐이다. ㉣ **밭을 황폐하게 하는 것도 자신이요, 개간해 내는 것도 자신이다.** 나는 여태껏 개간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개간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 정은, <기황전설>

* 사물(四勿): ‘예의에 맞지 않는 것이면 보지 말며, 듣지 말며, 말하지 말며, 행동하지 말라.’라는 안희의 말

* 삼성(三省): ‘나는 날마다 세 가지를 반성한다. 남에게 최선을 다했는가, 친구와 신의 있게 지냈는가, 배운 것을 익혔는가.’라는 중자의 말

★ (가) 고전 시가 독해 공식

- ① 화자: () , 중심 대상: ()
 ② 화자의 상황: ()
 정서, 태도: ()
 ③ 표현상 특징: ()

★ (나) 수필 독해 공식

- ① 중심 대상: ()
 ② 글쓴이의 생각, 태도: ()
 ③ 표현상 특징: ()

★ 시 복합 독해 공식

- 작품 간의 공통점: ()
 • 작품 간의 차이점: ()

B24 *** 2025 실시 9월 학평 38(고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공간에서 느껴지는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B25 *** 2025 실시 9월 학평 39(고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대상이고, ㉡은 글쓴이가 그 속성을 예찬하는 대상이다.
 ② ㉠은 화자의 시련을 부각하는 대상이고, ㉡은 글쓴이가 소망하는 바가 달라지게 만든 대상이다.
 ③ ㉠은 화자가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이고, ㉡은 글쓴이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다고 여기는 대상이다.
 ④ ㉠은 화자가 마음으로부터 경계하는 대상이고, ㉡은 글쓴이가 물질적 여유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대상이다.
 ⑤ ㉠은 화자가 거리를 두려는 대상이고, ㉡은 글쓴이가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키워 나가기를 바라는 대상이다.

B26 *** 2025 실시 9월 학평 40(고1)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연 속에 지내며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② ㉡: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평생토록 누리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③ ㉢: 마음이 황폐해지면 사심과 욕심으로 인해 결국 마음의 발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④ ㉣: 안화와 증자의 말을 교훈 삼아 마음의 발을 일굴 때 처음의 어려움을 이겨 내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⑤ ㉤: 자신의 내면이 어떻게 가꾸어질지는 스스로의 마음 가짐에 달려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B27 *** 2025 실시 9월 학평 41(고1)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문학 작품에는 삶에 대한 태도가 담겨 있다. (가)의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가난함 속에서도 세속적 욕망에 초탈하여 유유자적하는 삶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나)의 글쓴이는 발을 일구게 된 과정과 힘써 노력한 경험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깨우친 삶의 이치를 전달하고 있다.

- ① (가)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마음껏 노닐’면서 ‘부귀를 다 잊’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유유자적하며 세속적 욕망에 초탈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군.
 ② (가)에서는 ‘온갖 꽃이 가득 피어’ ‘나비들이 넘놀’고 있는 경치를 바라보며 다 이룰 수 없고 누구도 그려 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군.
 ③ (가)에서는 ‘몇 간 초가’에서 ‘붉은 채소’를 먹고 지내면서도 겨울의 ‘갓옷’과 여름의 ‘갈옷’을 마련하고자 힘쓰는 모습을 통해 가난한 환경을 이겨 내려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④ (나)에서는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있는 발을 ‘뿌리를 끊’은 뒤 ‘엷혔던 것’을 풀고 ‘단단한 흙’도 부수어 개간하는 과정을 통해 발을 일구어나가는 노력을 보여 주고 있군.
 ⑤ (나)에서는 ‘두어 이랑의 발’을 일구며 깨달은 경험을 통해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마음속’의 ‘좋은 밭’ 또한 황폐해 지지 않도록 잘 일구어야 한다는 삶의 이치를 전달하고 있군.

* 사전적 의미 이해하기

[01-20] 다음 의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고조되다 부두 교감 근심하다 대비하다
 강화하다 탐색하다 언급되다 본질 포용하다
 직면하다 다지다 무디다 역력히 고달프다
 조용하다 그을리다 경과 단조하다 송구하다

- 01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이다. ()
 02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하다. ()
 03 햇볕이나 불, 연기 따위를 오래 쬌어 검게 되다. ()
 04 시간이 지나감. ()
 05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 또는 말과 글의 앞뒤 따위가 서로 일치하게 대응하다. ()
 06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다. ()
 07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하다. ()
 08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
 09 누르거나 밟거나 쳐서 단단하게 하다. ()
 10 어떤 문제가 말하여지다. ()
 11 드러나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 따위를 찾아내거나 밝히기 위하여 살피어 찾다. ()
 12 칼이나 송곳 따위의 끝이나 날이 날카롭지 못하다. ()
 13 사물이 단순하고 변화가 없어 새로운 느낌이 없다. ()
 14 배를 대어 사람과 짐이 물으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 ()
 15 두려워서 마음이 거북스럽다. ()
 16 서로 접촉하여 따라 움직이는 느낌 ()
 17 사상이나 감정, 세력 따위가 한창 무르익거나 높아지다. ()
 18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다. ()

19 자취나 기미, 기억 따위가 환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하게 ()

20 몸이나 처지가 몹시 고단하다. ()

* 헛갈리는 의미 정확히 알기

[21-40] 다음의 의미에 알맞은 단어를 괄호 안에서 고르시오.

- 21 그곳에 있지 아니함. (현재, 부재)
 22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다. (성공하다, 성찰하다)
 23 어떤 일을 당하여 감정, 충동 따위가 일어난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촉발하다, 선발하다)
 24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 (활용하다, 수용하다)
 25 성격이 모난 데가 없이 부드럽고 너그럽다. (원만하다, 완만하다)
 26 아직 가지지 않고 남아 있는 운치 (서운, 여운)
 27 보이지 않는 것이 일정한 형태로 나타나 보이다. 또는 그렇게 나타내 보이다. (시각화하다, 형상화하다)
 28 결심이나 태도, 입장 따위가 과단성 있고 엄격하다. (단호하다, 단단하다)
 29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한 가지 일에만 파묻히다. (출몰하다, 골몰하다)
 30 벗어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추락, 낙락)
 31 분위기나 정세 따위를 만들다. (조성하다, 조망하다)
 32 앞날을 헤아려 내다봄. 또는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선망, 전망)
 33 본질적인 현상은 추구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관계하는 (단편적, 피상적)
 34 삶의 여유가 없고 힘겹다. (팍팍하다, 분분하다)
 35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르다. (용달하다, 도달하다)
 36 겉으로 나타내다. (표출하다, 검출하다)
 37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 줌. (매체, 매개)
 38 불이 사그라져서 재가 되다. (사위다, 면하다)
 39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섭리, 유리)
 40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가 몇 개로 갈리어 나뉜다. (양분되다, 구분되다)



어휘 + 개념어 총정리

* 모르는 어휘에는 ☒ 표시하고, 헛갈리는 어휘에는 한 번 더 ☒ 표시하세요.

7

- ㉠ **가관** [可 觀을 가 觀 볼 관]
꼴이 볼만하다는 뜻으로,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뜻
- ㉡ **가담** [加 涉할 가 擔 댐 담]하다
같은 편이 되어 일을 함께 하거나 돕다.
예 적을 공격하는 일에 **가담**하는 사람이 나날이 늘어났다.
- ㉢ **가르마**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 ㉣ **가정** [假 거짓 가 定 정할 정]하다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하다.
- ㉤ **각별** [各 각각 각 別 다른 별]하다
어떤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자세 따위가 유달리 특별하다.
예 이 물건은 옮길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 **각인** [刻 새길 각 印 도장 인]되다
머릿속에 새겨 넣듯 깊이 기억되다.
- ㉦ **간간** [間 사이 간 間 사이 간]이
시간적인 사이를 두고서 가끔씩
- ㉧ **간신** [艱 어려울 간 辛 매울 신]히
겨우 또는 가까스로
- ㉨ **감정 이입**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이입하여 마치 대상이 화자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다
화자의 감정 이입의 대상
- 허난설헌, <규원가>
- ㉩ **갈기다**
사람이나 동물의 몸 등을 주먹이나 채찍 따위를 휘둘러 때리거나 치다.
- ㉪ **감내** [堪 견딜 감 耐 견딜 내]하다
어려움을 참고 버티어 이겨 내다.
- ㉫ **감복** [感 느끼 감 服 입을 복]하다
감동하여 충심으로 탄복하다.
- ㉬ **감흥** [感 느끼 감 興 일어날 흥]
마음속 깊이 감동받아 일어나는 흥취
- ㉭ **강조** [強 강할 강 調 고를 조]하다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하게 주장하거나 두드러지게 하다.
- ㉮ **강행** [強 강할 강 行 다닐 행]하다
강제로 시행하다.
- ㉯ **강호** [江 강 강 湖 호수 호]
예전에, 은자(隱者)나 시인(詩人), 묵객(墨客) 등이 현실을 도피하여 생활하던 시골이나 자연
- ㉺ **강화** [強 강할 강 化 될 화]하다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이다.

- ㉻ **개입** [介 끼일 개 入 들 입]되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게 되다.
- ㉼ **개진** [開 열 개 陳 늘어놓을 진]하다
주장이나 사실 따위를 밝히기 위하여 의견이나 내용을 드러내어 말하거나 글로 쓰다.
예 발표자가 **개진**하고 있는 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 ㉽ **개키다**
옷이나 이부자리 따위를 겹치거나 접어서 단정하게 포개다.
예 자고 일어난 자리의 이불을 잘 **개켜서** 치워 두었다.
- ㉾ **개통** [開 열 개 通 통할 통]되다
길, 다리, 철로, 전화, 전신 따위가 완성되거나 이어져 통하게 되다.
- ㊀ **객관적** [客 손님 객 觀 볼 관 的 과녁 적]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
- ㊁ **객지** [客 손님 객 地 땅 지]
자기 집을 멀리 떠나 임시로 있는 곳
- ㊂ **거나하다**
술 따위에 취한 정도가 어지간하다.
- ㊃ **거동** [擧 들 거 動 움직일 동]
몸을 움직임. 또는 그런 짓이나 태도
- ㊄ **거북하다**
몸이 찌뿌드드하고 괴로워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자유롭게 못하다.
- ㊅ **거사** [擧 들 거 事 일 사]
큰일을 일으킴.
- ㊆ **거처** [去 갈 거 處 곳 처]
이미 갔거나 현재 가거나 미래에 갈 곳
- ㊇ **거처** [居 살 거 處 곳 처]하다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살다.
- ㊈ **검거** [檢 검사항 검 擧 들 거]되다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 등을 목적으로 수사 기관에 용의자가 일시적으로 억류되다.
- ㊉ **격동** [激 과격할 격 動 움직일 동]
감정 따위가 몹시 흥분하여 어떤 충동이 느껴짐. 또는 그렇게 느낌.
- ㊊ **견해** [見 볼 견 解 풀 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
예 두 사람의 **견해** 차이로 회의가 길어졌다.
- ㊋ **결렬** [決 결정할 결 裂 찢을 렬]되다
교섭이나 회의 따위에서 의견이 합쳐지지 않아 각각 갈라서게 되다.
예 노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 **결박** [結 맺을 결 縛 묶을 박]하다
몸이나 손 따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이어 묶다.
- ㊍ **결백** [潔 깨끗할 결 白 흰 백]하다

- 행동이나 마음씨가 깨끗하고 조출하여 아무런 허물이 없다.
- ㊎ **결의** [決 결정할 결 意 뜻 의]
뜻을 정하여 굳게 마음을 먹음. 또는 그런 마음
- ㊏ **결핍** [缺 이지러질 결 乏 가난할 핍]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
예 그는 식사를 걸러 영양 **결핍**으로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다.
- ㊏ **겸비** [兼 겸할 겸 備 갖추 비]하다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추다.
예 그는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다.
- ㊏ **경계** [警 경계할 경 戒 경계할 계]하다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하다.
- ㊏ **경과** [經 경서 경 過 지날 과]
시간이 지나감.
- ㊏ **경물** [景 경치 경 物 만물 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치
- ㊏ **경외** [敬 공경할 경 畏 두려워할 외]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
- ㊏ **경작** [耕 밭갈 경 作 지을 작]하다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다.
- ㊏ **경합** [競 다툰 경 爭 합할 합]
서로 맞서 겨룸.
- ㊏ **경향** [傾 기울 경 向 방향 향]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 ㊏ **계기** [契 맺을 계 機 틀 기]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
- ㊏ **계책** [計 꾀할 계 策 꾀 책]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꾀나 방법을 생각해 냄. 또는 그 꾀나 방법
- ㊏ **고결** [高 높을 고 潔 깨끗할 결]하다
성품이 고상하고 순결하다.
- ㊏ **고고** [孤 외로울 고 高 높을 고]하다
세상에 초연하여 홀로 고상하다.
- ㊏ **고달프다**
몸이나 처지가 몹시 고단하다.
- ㊏ **고봉** [高 높을 고 峯 봉우리 봉]
높은 산봉우리
- ㊏ **고수** [固 굳을 고 守 지킬 수]하다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 따위를 굳게 지키다.
예 그는 10년 째 같은 머리 모양을 **고수**한다.
- ㊏ **고심** [苦 괴로울 고 心 마음 심]하다
몹시 애를 태우며 마음을 쓰다.
- ㊏ **고이다**
물 따위의 액체나 가스, 냄새 따위가 우묵한 곳에 모이다.